

공동의 미래를 위한 동행,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지방소멸 대응 협약

-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31개 기초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간 간담회’ 개최, 지방소멸 대응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 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연계효과(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 개요 >

- ▶ (일시/장소) '25. 5. 30(금) 14:00~16:00, 보령머드테마파크컨벤션센터
- ▶ (참석) 중기부 차관, 행안부 차관보,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 ▶ (주요내용)
 - (중기부) 지역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 (법무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 외국인력 공급
 - (행안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농식품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와 거버넌스 구축하고 농촌의 활성화 지원
 - (기초자치단체) 지역 주민, 외국인, 농촌기업 근로자 등의 정주여건 개선

본격적인 업무협약식에 앞서,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중기부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경과 발표를 진행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개 부처의 정책수단을 모두 연계하는 보령시 사례를 각 부처와 지역에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협의하였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혁신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와 협업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이 모이고 정착하는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지방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활력 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부처 사업을 융복합한 우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혁신 산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임상규 (044-204-7480)
	지역혁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민준현 (044-204-7581)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책임자	과 장	김병철 (02-2110-4377)
		담당자	사무관	이재인 (02-2110-4364)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박종근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김창균 (044-205-350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책임자	과 장	김보람 (044-201-1551)	
	담당자	사무관	금병수 (044-201-155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1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인구감소(관심)*·농촌지역, 소재·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육성
 - *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총 107개 지역(행안부 고시, '21.10월)
- (지원대상)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개 + 농촌협약 기선정('21~'24) 지역 84개
- 지원내용
 - (중기부) 사업화 등 기업수요에 기반한 메뉴판식 지원

구분	세부 프로그램
혁신화&성장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융복합(CT, 플랫폼 기술 등) 및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 기존 연고산업 고도화 및 신규 연고산업 발굴을 위한 지자체 컨설팅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역량 및 기술트렌드 교육·컨설팅, 애로사항 모니터링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도 및 기술애로 해소 ○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획득 지원 ○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지원 ○ 마케팅 지원(판매전략 수립, 거래망 확보 등) ○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고급화
패 키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컨설팅 → 제품개발 → 사업화 → 마케팅 등 맞춤형 기획·지원

* 지자체별 기업 및 산업현황 분석에 따라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가 가능

- (협업부처) 법무부(지역특화비자활용 외국인력지원), 행안부·농식품부(기금 등 활용 인프라지원)

< 부처별 협업 지원 프로젝트 가상 예시 >

구분	기업지원	인력지원	인프라구축	
사업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소멸 대응기금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부처	중기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내용	기업성장 프로그램 지원	외국인력 공급	기업 공동활용 공간 지역 근로자청년 주거공간 등 구축	농촌기업 전후방 지원시설

참고2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 총 107개
 -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지역
 - (관심지역) 총 18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89개 지역)>

광역(11개)	기초지자체(89개)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관심지역 현황(18개 지역)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부산(중구, 금정구), 광주(동구), 경남(통영시),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북(경주시, 김천시), 경남(사천시) 전북(익산시), 인천(동구), 경기(동두천시, 포천시)

참고3 농촌협약 개요

- (법적근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16조
-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 지원
 - * 농촌공간정비사업(난개발 정비), 농촌중심지활성화(복합서비스 거점시설 조성) 등 22개 사업
- (협약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
- (협약이행)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시·군은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의무를 이행
 - * 지자체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원+지방비, 민간투자 등(협약기간 : 5년)
- (참여조건)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협약 추진체계 구성·운영 등

<농촌협약 선정 시·군 현황>

구분	경기(6)	강원(7)	충북(16)	충남(12)	전북(14)	전남(16)	경북(23)	경남(17)	제주(2)
'25년 (17)	이천	횡성	영동, 제천, 괴산, 음성, 청주	당진, 부여	순창	나주, 신안	문경, 상주	양산, 의령, 합천	-
'24년 (21)	가평	횡성	충주, 증평	천안	정읍, 원주, 장수	광양, 담양, 장성	포항, 김천, 안동, 경산, 청송, 영양, 영덕	사천, 하동	서귀포
'23년 (22)	양평	정선	보은, 옥천, 단양	보령, 당진	남원, 고창, 부안	영암, 영광	경주, 구미, 영천, 의성, 성주	창원, 진주, 의령, 함양	제주시
'22년 (21)	여주	양양	청주, 진천	서산, 부여, 아산, 예산	군산, 익산	순천, 구례, 해남, 함평	영주, 칠곡, 예천, 울진	함안, 창녕, 거창	
'21년 (20)	안성	평창	제천, 음성	청양, 금산	무주, 진안, 김제	화순, 나주, 장흥, 강진	봉화, 청도, 군위, 고령	산청, 합천, 고성	
'20년 (12)	이천	원주, 영월	영동, 괴산	홍성	순창, 임실	보성	상주	김해, 밀양	

- 향후 추진 방향
 - 지자체 수요에 맞는 농촌협약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농촌 공간의 체계적인 개발·이용·보전을 위한 시·군 계획 이행 지원

참고4 지역특화형비자 개요

- (목적) 인구감소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주요내용
 - 지역우수인재, 동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 (동포는 2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발급 및 지역정착 지원
 -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전년도 국민총소득 70% 이상 소득, 한국어능력 시험 4급 이상, 법질서 준수(범죄경력 등), 취업 확정 등
- 추진경과
 - (시범시행) '22.10월부터 '23.10월까지(1년간) 28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지정 및 지역우수인재 추천인원 1,500명 배정
 - (정식시행) ▲('24년) 66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지역우수인재 총 3,291명을 배정('24.1월), ▲('25~'26년) 74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지역우수인재 총 5,072명을 배정('25.2월)
- 추진절차
 - (법무부) 지역특화형비자에 적합한 외국인 기본요건을 설정하고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에게 비자발급 및 체류관리
 - 인구감소지역 중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추천권을 부여(지역우수인재는 쿼터배정)
 - (지자체) 해당 지역에 정착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수요를 예측하고 발굴하여 법무부에 추천 및 외국인 정착지원*
 - * 지역주민 설득 및 이해 강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의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교육,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참고5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지원대상)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 (광역) 서울, 세종 제외 / **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 (규모/근거) 연 1조원(기초75%, 광역25%), 10년간 지원('22년~'31년)
 - * '22년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0.75조원 규모로 지원
- (운용방법) 기금관리조합(17개 시·도로 구성)이 관리·운용하되, 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22.2월 배분기준 고시)
- (배분계획)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광역은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 * (감소지역) 최대 160억원 ~ 최소 72억원, (관심지역) 최대 40억원 ~ 최소 18억원
- (기초계정) 자치단체가 수립한 투자계획 평가* 및 등급별 차등 배분
 - * 조합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수행(서면검토→대면평가→종합평가)
- (광역계정) 평가 없이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 1조)	기초계정 (75%, 7,500억)	인구감소지역 89개 (95%, 7,125억) 관심지역 18개 (5%, 375억)	▶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 ⇒ 성과 지향적 운용
	광역계정 (25%, 2,500억)	인구감소지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1,500억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1,000억원)	▶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 ⇒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용 ▶ 대규모 펀드사업 추진 지원